2021 교사용 카드뉴스

틱과 한국사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1

틱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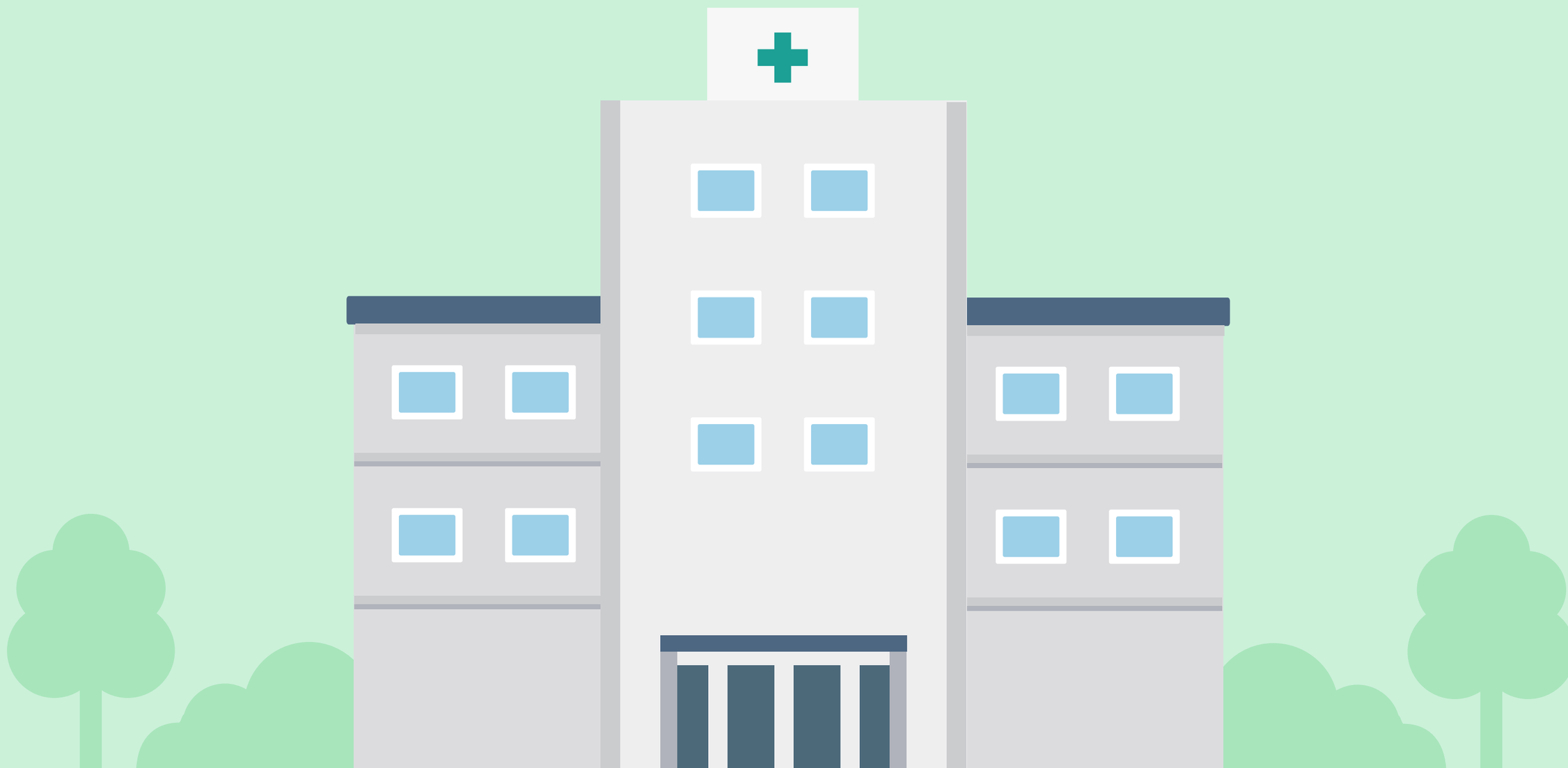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02

틱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라는 긍정적 인식의 변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틱을 질병이 아닌
나쁜 습관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03

대부분의 틱은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틱은 눈을 깜박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현상을 보이다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전체 아동의 10~20%가 일시적인 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증상은 7~11세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일과성 틱장애

1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1년 내에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학령기 아동의 5~15%)

만성 틱장애

1년 이상 이상 지속(일과성 틱 발생 아동 중 1%)
운동틱이나 음성틱 중 한가지만 나타남

뚜렛장애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발생
(뚜렛장애는 1,500명 당 1명꼴로 진단)

04

올바른 진단을 위해 공존질환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원을 찾는 경우에 틱과 주의력결핍장애가 공존하는 경우는 40-60%에 이릅니다.
- 틱장애와 강박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20~40%에 이릅니다.
- 틱에 대한 진료를 볼 때 다른 공존질환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존질환을 놓치고 치료가 지연되면 아동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틱이 생긴다?

틱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심리적 요소(스트레스)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06

뚜렛장애의 처음 양상은 얼굴과 목에서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의 아래로 이동하며 보다 복잡한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반수는 단순틱으로 시작.

복잡한 근육틱이나 음성틱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납니다.

복합 운동 틱

자신을 치는 행동, 물건 혹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건드리는 행동, 옷을 매만지는 행동, 글씨를 쓰면서 연필을 잡아 끄는 행동 등

음성 틱

기침소리와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빠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 주변 상황과 맞지 않은 말(ex, 옳아, 입 닥쳐, 그만해 등)을 반복

07

틱장애는 보통 18세 이전에 발병되고 대개 사춘기 초기에 가장 심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틱 증상의 경과는 개인마다 서로 다르지만 대개 사춘기 초기에 가장 심했다가 사춘기 후반에서 초기 성인기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적 연구에 따르면 25%의 환자만이 성인기까지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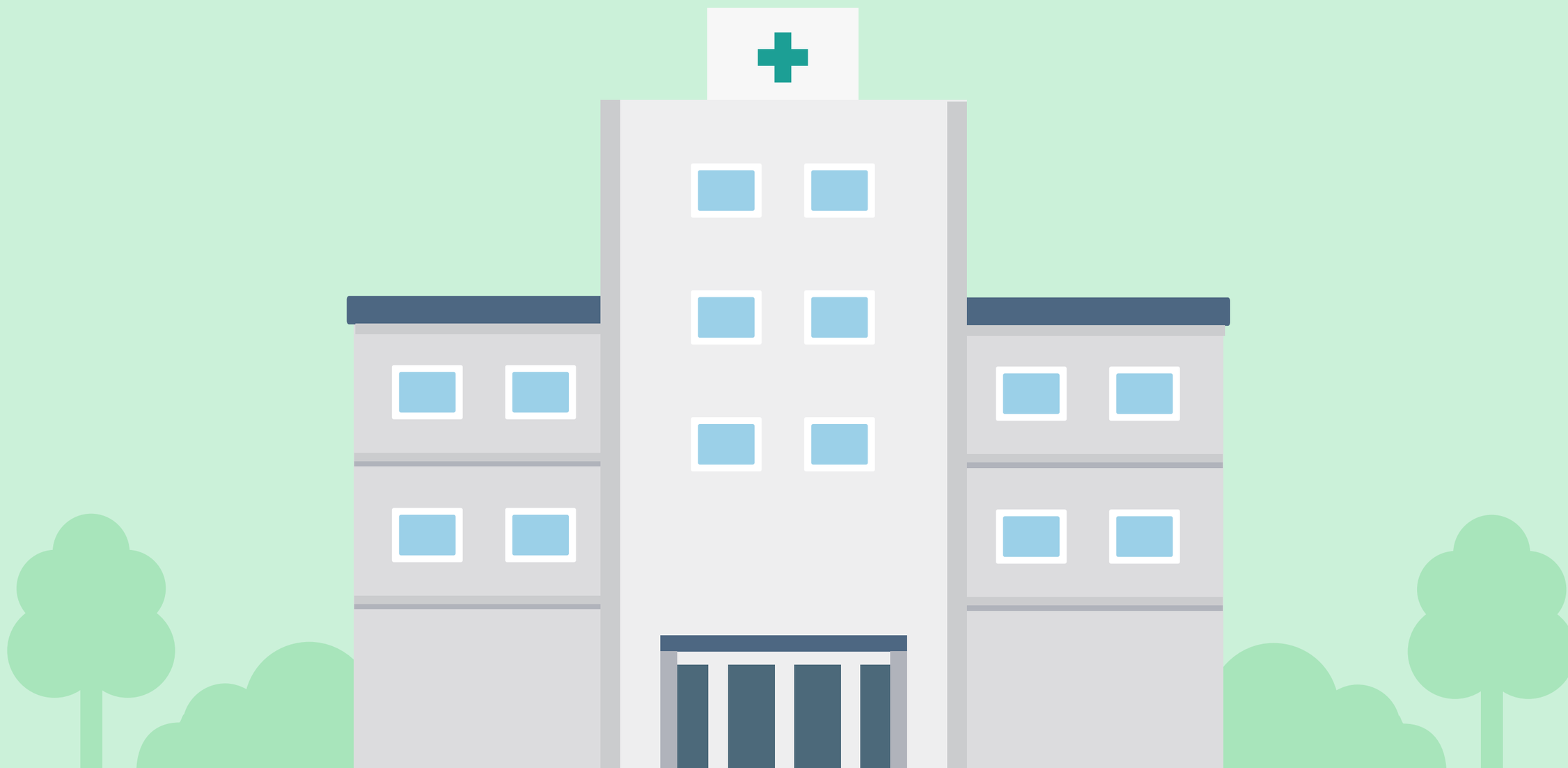
08

틱의 치료는?

- 틱장애의 치료는 전반적인 기능과 동반 정신병리, 발달과제, 가족과 사회 적응 등을 기준으로 장기간 치료해야 하며, 틱을 소멸하는 것보다 학교에 적응하거나 강박증상을 없애는 것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틱 자체는 약물 치료로 상당 부분 호전되지만 일과성 틱장애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를 먼저 권합니다.



2021 교사용 카드뉴스

틱과 한국사회

카드뉴스 문의사항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640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